

단체장·광역의원 19% 병역면제

광주·전남 후보자 분석

5·31 지방선거 후보자 등록 마감일인 17일 오후 5시 현재 광주·전남도 선관위에는 선출직 공무원 정수(410명)의 3배에 가까운 1천200여명이 등록해 치열한 경쟁을 예고했다. 후보들의 재산과 납세실적, 전과, 병역, 전과기록 등을 분석해본다.

재산 전형준 44억원 최고...100여명 마이너스

(화순군수 후보)

40억원이 넘는 재력가도 있었지만 빛이 더 많아 재산이 '마이너스'인 후보자도 100여명에 달하는 등 전반적으로 빈부차가 뚜렷했다.

최고 재력가는 43억8천만원을 신고한 민주당 전형준 화순군수 후보로 나타났다. 서울에서 건설업체를 운영하는 전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토지 13억5천만원과 본인과 배우

자, 자녀 등의 명의로 예금 13억8천만 원을 신고했다.

광주에서는 광주시여성단체협의회장을 지낸 한나라당 한 영 광주시장 후보가 36억9천만원을 신고해 재산이 가장 많았고 건설업을 하는 무소속 양희환 동구청장 후보(28억8천만원)와 치과의사인 열린우리당 양해령 광주시의원 후보(26억7천만원)

가 뒤를 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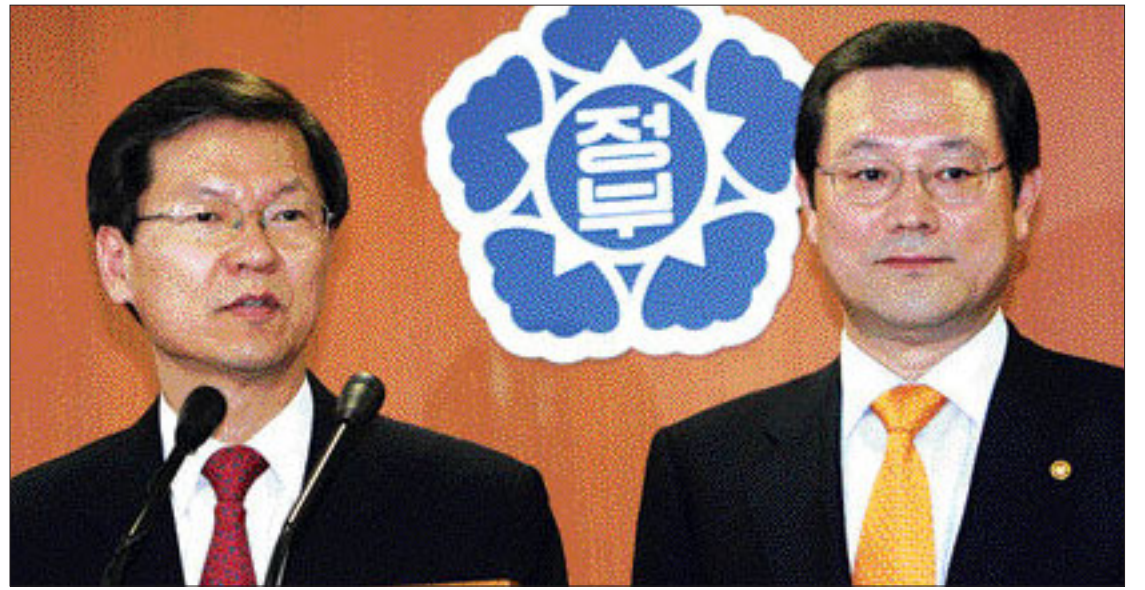
이에 반해 '빛이 더 많다'며 마이너스 재산을 신고한 후보도 무려 100여명에 달했다.

열린우리당 정만수 광주 남구의원 후보는 -16억7천835만원을 신고했다. 정 후보는 본인과 배우자 명의의 은행대출금과 전세보증금 등 채무가 36억원이었다. 민주당 오창규 광

주 북구청장 후보 등 4명은 재산이 없다고 신고했다.

광주시장 후보의 경우 열린우리당 조영택 후보 17억3천만원, 민주당 박광태 후보 11억5천만원, 민주노동당 오병윤 후보 1억3천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전남지사 후보의 경우 민주당 박준영 후보 7억4천만원, 열린우리당 서범석 후보 6억3천만원, 한나라당 박재순 후보 3억9천만원, 민주노동당 박용두 후보는 1천900만원을 각각 신고했다.



천정배(왼쪽) 법무부 장관과 이용섭 행정자치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브리핑실에서 광명선거를 담당하는 대국민 공동담화문을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같은 대학 학생회장 출신 선·후배 맞대결 10전 11기 도전...부인 대신 남편 출마도

별난 후보 이색 대결

이번 5·31 지방선거에서도 동명이인 후보가 있는가 하면 10전11기 도전하는 후보가 있는 등 이색후보들이 눈에 띈다.

목포지역 제1지구 도의원 선거에는 고교, 대학 동문에 각각 대학 총학생회장을 지낸 후보가 맞대결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오원옥(37), 민주당 황정호(43) 후보는 목포고 37회와 31회로 선후배 사이로 틀다 목포대에 진학해 황 후보가 86년, 오 후보 95년에 총학생회장을 역임했다. 선배인 황후보는 시의원을 거쳐 도의원 2선에 도전중인데 비해 오 후보는 참선함과 패기를 무기로 도전장을 냈다.

무안 제1선거구 광역의원에 도전하는 김석원(金石源) 후보와 해남 제1선거구 광역의원에 도전하는 또 다른 김석원(金碩元) 후보는 동명이인 후보다. 무안의 김석원 후보는 광주일보에서 감대동 전 대통령 전담수행 취재 기자를 지냈으며 해남의 김 후보는 건설회사 대표와 도의원을 지냈다. 이들은 소속도 민주당으로 같다.

광주 남구청장에 도전하는 열린우리당의 김화진 후보는 광주의 대표적 교통체증 지역인 남구 방림3거리의 출근시간대 교통정체를 위해 11년째 봉사활동을 펴고 있는 인물이다.

또 같은 남구청장 출마자인 무소속 강도석 후보는 11번째 선거 도전에 나섰다. 강씨는 1988년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0년 가까운 기간에 국회의원 4차례, 구청장 5차례, 광역의원 1차례 등 10차례 각종 선거에 도전한 바 있다. 현 광주 남구청장으로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황일봉 후보는 학생 운동도중 프락치의 폭력으로 한쪽 눈을 다친 장애인이다.

또 광주 북구 제2선거구 광역의원에 도전하는 열린우리당 문상필 후보 소아마비로 다리를 저는 장애인으로 사단법인 광주북구장애인복지회이사장으로 활동하며 장애인 복지운동을 하다가 이번에 광주시에원에 도전장을 던졌다.

남편을 대신해 부인이 출사표를 던진 경우도 있다. 목포시 마선거구에 출마한 무소속 유영심 후보는 현 기초의원인 남편 강원암씨 데타로 출마했다. 유씨는 남편이 민주당 공천을 신청했다가 탈락하는 바람에 '같은 지역에 출마할 수 없다'는 당 규정에 따라 부인을 내보냈다. 반대의 경우도 있다. 목포 다선거구에 출마한 문창부 후보는 부인 김수나(39) 현 의원 대신 출마했다.

광주 서구청장에 도전하는 열린우리당 김종식 후보와 민노당의 강기수 후보는 서구청에서 함께 근무한 인연이 있다. 김 후보는 청장으로, 강 후보는 서구청 재물관리과에 각각 재직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이번엔 꼭...” 나주시장·해남·구례군수 리턴매치 눈길

4년 전 또는 2년전 보궐선거에서 승자와 패자로 갈렸던 두 후보가 또 다시 맞붙는 리턴매치 선거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후보 등록 마감 결과, 재대결 지역은 나주시·해남군·구례군 등이다.

나주시장 선거의 경우 민주당 소속으로 감대동 후보가 재도전에 나섰고 현직 시장인 무소속 신정훈 후보가 맞서고 있다. 김 후보와 신 후보는 2002년 선거에서 신 후보가 800여표차로 신승을 거뒀다. 당시 김 후보는 민선 2기 단체장에서 재선에 도전했고 신

후보는 도의원(재선)을 거친 뒤 도전장을 내밀었다.

또 다른 리턴매치는 해남군수 선거전이다. 지난 2004년 10·30 보궐선거에서 맞붙었던 현직군수인 민주당 박희현 후보와 무소속 민화식 후보가 재대결을 펼치고 있는 것. 구례지역도 열린우리당 후보가 와신상담하며 주민의 심판을 기다리는 열전지역. 현직 군수인 민주당 전경태 후보에 맞서 열린우리당의 서기동 후보가 4년 전 설욕에 나섰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납세 단체장 최다 1억 3천만원...9명 체납전력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동안 소득세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납부액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 정기호 영광군수 후보가 1억3천780만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광역·기초단체장 후보 중 세금을 체납했다가 뒤늦게 납부한 후보는 민

주당 박광태 광주시장 후보(715만8천원), 김경부 진도군수 후보(844만 원), 황주홍 강진군수 후보(108만8천 원), 송광운 북구청장 후보(20만3천 원), 이정섭 담양군수 후보(10만4천 원), 민주노동당 김경태 광양시장 후보(18만6천원), 무소속 김상현 진도

군수 후보(890만원), 이동진 진도군수 후보(74만7천원), 최영호 남구청장 후보(29만3천만원) 등 9명이었다.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 후보 중 5년간 100만원 이하 세금을 낸 후보는 22명이었다. 이 가운데는 납세 실적이 '0원'인 후보도 2명 포함됐다.

광주시장 후보의 경우 열린우리당 조영택 후보 7천943만원, 한나라당 한 영 후보 6천944만원, 민주당 박광태 후보 2천985만원, 민노당 오병윤 후보 126만원으로 나타났다.

전남지사 후보는 열린우리당 서범석 후보 1천636만원, 한나라당 박재순 후보 2천835만원, 민주당 박준영 후보 4천91만원, 민주노동당 박용두 후보 4만6천원을 각각 납부했다.

병역 민주 16·무소속 15·우리당 12명 미필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자 가운데 19% 가량이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병역의무 대상자 265명 가운데 18.9%인 50명이 '군복무를 하지 않은 사람'으로 신고했다.

광역단체장은 전체의 28.6%, 시·군·구 기초단체장은 15%, 광역의원의 경우 22.4%가 병역을 이행하지 않

은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도지사 후보로 나선 한나라당 박재순 후보는 '항문결핵 수술 후' 질병을 사유로 제2국민역에 편입됐고 민주당 박용두 후보도 '질병 및 장애'때문에 제2국민역으로 편입됐다.

전남지역 기초단체장 후보 가운데 민주당 감대동 나주시장 후보는 입영 기피와 자수신고, 입영기일 연기

이여 보충역으로 소집면제된 것으로 나타났고, 무소속 하승완 보성군수 후보는 징병검사 기피와 장기대기에 따라 소집면제된 것으로 신고했다.

광주 구청장 후보 가운데 민주당 유태명 동구청장 후보는 질병 등으로 3차례 입영기일을 연기한 뒤 입영 후 귀가조치돼 41세에 '병역의무종료'를 받았다. 또 나란히 남구청장 후보로

나선 열린우리당 김화진 후보와 민주당 황일봉 후보, 민주노동당 김창훈 후보를 비롯해 민주노동당 강기수 서구청장 후보는 각각 질병 및 장애로 제2국민역으로 편입됐다. 무소속 최영호 남구청장 후보는 '수형으로 인 해 소집면제됐다.

정당별로는 민주당이 16명으로 전체의 32.0%를 차지했고 무소속이 15명으로 30%, 열린우리당이 12명으로 24%, 민주노동당 5명, 한나라당 1명으로 나타났다.

전과 국보법·파렴치법 등 13·2% 전과 기록

광주·전남지역 광역·기초단체장과 광역의원 후보자 287명 가운데 13.2%인 38명이 전과기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광역단체장 후보로 출마한 민주당 박광태 후보는 긴급조치법 위반을, 민노당 오병윤 후보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전과기록을 신고했다. 기초단체장 후보로는 민주노동당

오창규 북구청장 후보와 민주당 황일봉 남구청장 후보가 각각 국가보안법과 집시법 위반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으며 목포시장에 출마한 민주노동당 박기철 후보도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를 공개했다. 무소속 신정훈 나주시장 후보는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구례군수 재선에 도전한 전경태

(민)후보는 폭력과 향군법 위반 등 2건의 전과기록을 신고했으며 보성군수에 출마한 한미준의 김종표 후보는 사기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흥군수에 임후보한 민주당 김성 후보는 폭력으로, 같은 지역의 백광준(무) 후보는 사기와 변호사법 위반 전과기록을 신고했다. 민주당 안병호

함평군수 후보는 도박으로, 같은 지역에서 도의원에 출마한 김성호(민) 후보는 조세범처벌법 위반으로 처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기초의원에 도전한 대부분 입후보자는 절도·탈세·뇌물수수·도박·폭력 등 파렴치 범죄가 적지 않았다. 광역의원 안도 제2선거구에 입후보한 무소속 김산옥 후보는 폭력과 태풍피해 보조금과 관련한 사기 및 사문서위조로 처벌을 받았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자유와 정의, 민주주의를 위해 고귀한 목숨을 바치신 5·18 영령들 앞에 머리숙여 삼가 명복을 빕니다

오월에서 통일로...

국립 5·18 민주묘지 유족회

4차 전국 유족대회

주최: 5·18민주묘지 유족회

주최: 5·18 유족회

주최: 5·18 유족회

주최: 5·18 유족회

주최: 5·18 유족회

호남가구단지

주최: 호남가구단지

주최: 호남가구단지

주최: 호남가구단지

주최: 호남가구단지

김길수

주최: 김길수

주최: 김길수

주최: 김길수

주최: 김길수